

한반도 전략지형 읽어보기 (5) : 또 다른 ‘코리아안웨이’를 찾아서



이 동 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지형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는 안보의 유지,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통일의 성취이다.

안보 없이는 평화가 없으며, 평화가 전제 되지 않고선 통일을 논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전략지형을 산에 빗대어 보면, (군사)안보의 첫 봉우리를 넘어야 평화의 봉우리가 나오고, 이를 넘어야만 마지막 봉우리인 통일에 이르게 되는 험준한 연봉을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등정로에서 오르막길은 비록 힘들어도 목표에 가까워지는 희망의 과정인 반면, 내리막길은 다음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전쟁 이후 비록 완전한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 하에서 간헐적인 북한의 무력 도발들도 있었으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공고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첫 번째 봉우리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이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작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에도 위험요소를 투사하고 있으며, 국내 여론의 분열로 총체적 안보 불안감도 고조되는 국면이 전개되는 내리막길이다.

이 내리막길이 이끄는 골에서 벗어나 남·북관계개선과 비핵평화협상이라는 어려운 과제들을 동시적으로 성공시키게 될 경우야 평화라는 다음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 간 평화공존이 제도화 될 두 번째 봉우리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국제질서의 변환 과정에서 가속화 될 주변강국들의 전략변경과 그 일환으로 나타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 노력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은 현상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현상변경을 피할 경우라도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간 흥정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과도한 국제화라는 내리막길의 험난함을 딛고 통일성취라는 세 번째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북 간 통합의 제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일에 못지않게, 주변강국의 전략변경이 가져올 수도 있는 기회之窗을 더 넓게 열기 위한 담대한 전략 구상이 필요해질 것이다.

상기한 총체적 조감도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첫 번째 안보의 봉우리를 내려와, 두 번째 평화의 봉우리를 올라 가야하는 변곡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 과정은 안보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비핵화 협상의 확실한 진전이 남·북·미 삼각관계 속에서 선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돌파가 가능해진다.

삼각관계의 선순환구조는 세 변의 관계, 즉,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관계가 각각 안정되게 발전되고 세 관계 간에 균형이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완화의 적극화와 경제협력 가능성 확대의 교환관계를 축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축적되어 가는 남·북 지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히려 예상될 수 있는 난관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분열적 양상이 정치문제로 확연히 증폭되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미관계는 큰 틀에서 볼 때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의 교환관계를 모색하는 단계이며, 비록 양 의제 간에 등가성을 지니는 접합점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극복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탑다운의 구조에서 미국은 물론 북한도 정치적 득실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간게임에 몰두하면서, 협상의 본질적 의제인 비핵화에 소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현재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가장 고심하여야 할 부분은 한·미관계이다.

한·미는 확고한 포괄적 동맹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양대 축들인 군사동맹과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미국우선주의 실현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함에 따라,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틀에 변경이 가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 북·미관계와 연계된 가운데, 한·미 간 기존 관계를 더욱 공고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환관계가 나와야만 삼각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균형되게 안정화될 것이다.

이러한 한·미관계의 발전 구상은 통일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질서변환 과정에서의 미·중관계에도 주목하면서 대전략의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전 우리는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히말 원정대’가 새로운 등정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대원 5명이 조난사고를 당했다는 너무나 애통한 비보를 접했다.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원정대를 이끈 김창호 대장은 평소 이미 개척된 루트를 따라 정상에 오르는 ‘등정주의’보다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면서 등산의 과정을 중시하는 ‘등로주의’를 선호해 왔다고 한다.

안보, 평화 그리고 통일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험준한 한반도연봉의 탐험은 이미 개척된 등정로도 없는 미답의 지형이기 때문에 ‘등로주의’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우리 산악인들의 염원과 의지가 최근의 안타까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될 수 없듯이, 통일을 향한 우리의 행보 또한 이미 예상되어 있거나 또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발발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향해 ‘전략의 구상은 담대하면서도, 전술의 구사는 신중히’ 해 나가는 등정로로써 또 다른 ‘코리안웨이’를 기대해 본다.

* 이동휘 부회장(donghwi51@gmail.com)은 국립외교원 교수·연구실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겸 외교협상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위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름.)